

◎ 연중 제 2주일강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증언하는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호칭합니다. 성찬 전례가 시작되고 평화 예식이 끝나면 신자들은 사제가 축성된 빵을 나누는 동안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또 성체를 영하기 직전에 사제는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성체를 높이 들어 외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에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완고하여 말을 듣지 않자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만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리시기 위해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탈출12,13).

이렇게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

를 기념하기 위해 ‘건너뛰다’라는 의미의 파스카 축제가 대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만이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희생양을 파스카의 어린양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속죄의 제물로 어린양을 잡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과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칭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 죽음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소리 높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렀으며 실제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어린양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하느님의 길을 따른 예수님의 삶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 승리했음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지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청하고 평화를 빌면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고, 평화를 주는 어린양으로서 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미움과 보복의 고리를 끊고 평화를 끌어내는 삶이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삶처럼 고생스럽고 초라해 보이며 답답할 정도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현명한 신앙인의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오금동본당 주임)

고 슘 도 치

안녕! 내 이름은 고슴도치야.
난 스스로 보아도 아주 잘 생긴 수컷이지.
나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
그건 바로 나의 온 몸에 돌아있는 가시!
이 가시가 참 자랑스러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바위틈에서 쉬고 있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암고양이를 만난거야.

가슴이 두근거리 숨쉬기도 힘들더군.
그래도 나도 사나이잖아...
결국 용기를 냈지.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

"아니, 아가씨 참 무례하군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맘으로
용기를 내어 다가왔는데,
나처럼 잘 생긴 고슴도치가
그렇게도 싫습니까?"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그녀의 반응이었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본 순간 사랑을 느꼈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제게 가까이오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당신 몸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만 얼굴을 찌푸리게 된
거라고요."

나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던 가시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가시로
그들이 다가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울드레아 : 매월 첫주일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

고요한 한밤중에 주님앞에서
예언자 우리에게 권고한대로
성부와 성자성령 삼위일체께
정성된 찬미찬송 드리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하느님
유일한 본성본체를 지니셨기에
십위로 일체심을 흠송하오며
언제나 끊임없이 찬미하리다
밤이면 옛두려움 되살아나네
진멸의 하늘천사 에집트땅찾아
예리한 죽음의칼 두손에잡고
에집트의 만이들을 모두죽였네

의인은 그밤에도 구원됐다네
문설주 양의피로 칠하였더니
천사가 발길돌려 지나가시어
간택된 주님백성 살려주셨네
우리는 하느님의 간택된백성
예수의 붉은피로 구원됐으니
원수와 악령들을 업신여기며
다함께 주님안에 기뻐하리라

지극히 인자하신 천상임금님
우리께 천상영광 허락하시면
영원한 찬미노래 불러드리며
주님을 무궁토록 기리오리다.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 1월 구역모임
 - ▶1구역: 1/26(토) 오후 6시, 한승중형제집
 - ▶3구역: 1/27(일) 미사후, 박용대형제집
 - ▶4구역: 1/26(토) 오후 7시, 이 민형제집
- ◎ 1월 사목회의
 - ▶일시: 1월 27일 주일 미사후
 - ▶장소: 김직현 형제집
 - ▶대상: 장/차장 및 각 구역장 (사목위원전원)
- ◎ 올뜨레야 모임
 - ▶오늘 미사후 제의실에서 있습니다

- ◎ 바뇌기도회 모임
 - ▶1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이명희형제집

-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매일 미사책을 추가 신청 받습니다.
 - ▶마감 : 1월 27일 다음주 미사일까지
 - ▶문의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 집에서 사용할 개인초 주문 받습니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날 초를 축성합니다.
집에서 사용할 초를 1월 27일까지 주문받습니다.
 - ▶금액 : \$15
 - ▶신청 : 서기 한택중 (B)519-883-8488

- ◎ 각 구역장님께 알립니다
2월 영명축일을 파악하여 구역부장님께 주세요

-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192@hanmail.net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 ▶주소 :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 ▶가입방법: 먼저 굿뉴스에 가입하시고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또한 청소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주간 전례
 - ▶1 월 22일(화) 밤 8시, 연중 제 2주간화요일
 - ▶1 월 24일(목) 밤 8시, 성 F.드살주교기념일

- ◎ 2008년 꾸르실리스파 연례 피정
일시 : 08년2월 1일(오후 6시)- 3일(오후5시)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참가비 : \$ 200, 신청마감 : 1월 27일
신청 및 문의 : 이해신 요셉

용서의 유익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때론 원망과 분노를 가져오고, 원한이 쌓여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그 때문에 늘 괴로워 하게 되지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용서라는 마음으로 놓아주고 과란 하늘을 보며 크게 웃어 보세요.

미사전례

해설 | 박인선 차주해설이민

화답송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주님의 뜻을 즐겨 이루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셨도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56) 목자를 따라서
봉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 (452) 위험에 빠진 자에게

독서
1월 20일 이상재 이항숙
1월 27일 장명길 장용경
2월 3일 고영호 고기숙

봉헌
1월 20일 이민 이활란
1월 27일 이상재 이항숙
2월 3일 장명길 장용경

복사
1월 20일 하람 지현
1월 27일 지홍 현재
2월 3일 수빈 경은

2008년 1월 13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47.25
교무금 :	\$ 995.00
감사헌금:	\$ 20.00
Total:	\$ 1762.25

2008-03 2008. 1. 20. 연중 제 2주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